

『월드뷰』가 만난 이달의 인물

가정과 중독, 이단, 행복을 중심으로 정동섭 교수를 만나다

정동섭 교수는 침례신학대학에서 18년간 가정생활과 상담심리학을 가르쳤으며 5년간 한동대학교 대학원, 캐나다 VIEW대학원에서 기독교적 상담과 대화기술을 강의한 가정사역자이며 상담심리학자이다. 1994년 가정사역학회 초대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기독교상담 심리치료학회 감동회원이기도 하다. 대학재학 중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에 미혹되어 8년간 교주 유병언의 통역비서 역할을 한 배경 때문에 이단전문가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고 옥한흠 목사의 인도로 회심하여 기독교상담학을 전공하기 전 주한영국대사, 미국대사, 정주영 회장의 통역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상임위원이며, 사이버중교피해대책연맹 총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가족치유, 마음치유> <크리스천 카운슬링> <크리스천 코칭> 등 50여권의 책을 번역한 심리학자이며, <자존감 세우기> <행복의 심리학> 등 20여권의 책을 저술한 긍정심리학자이다. 현재 가족관계연구소장으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한 사역에 진력하고 있다. 강남중앙침례교회(피영민 목사 담임) 협동목사로 있다. 신성회 독서상담실 대표로 있는 이영애 사모와의 사이에 두 아들과 두 명의 손녀를 두고 있다.

이 대담은 2018년 2월 19일 오전 안양에 있는 정동섭 교수의 가족관계연구소에서 이뤄졌다. 대담은 정 교수의 제자 정인숙 박사가 맡았다.

인터뷰 정인숙 박사 (그린상담소 소장)

정인숙 박사는 그린상담심리교육연구소 소장으로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가정사역과 상담심리를 전공하였으며, 이화여대에서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습관여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연구”로 박사학위(Ph.D.)를 취득하였다. 한국기독교상담심리치료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학회의 수퍼바이저로 현재 이화여자대학교의 외래교수이며 전문상담자로 후진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인숙: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사역자로 가정세미나도 인도하시고 이단전문가로 재판도 받으시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는 여러 TV 화면에 나오셔서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도 보았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정동섭: 구정을 지내고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 중

독, 이단, 행복과 관련하여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주제에 대해 대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의 책을 보면 할아버지가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노름으로 가정을 힘들게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신 것이 교수님께 미친 영향을 말씀해주세요.

정동섭: 저는 충청북도 음성군의 산골 벽촌에서 어린



정인숙 박사와 정동섭 교수의 인터뷰 현장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른 바 역기능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만났다면 구타를 하셨고요. 아버지는 식사 중에 어머니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손찌검은 안했지만) 격노하시고 밥상을 둘러앉으시곤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좋지 못한 본을 보고 자라면서 아내(여자)를 무시하도록 의식화되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구원파 이단에서 만나 결혼했는데, 처음 8년 동안 아내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했으며 언어적 폭력으로 괴롭혔습니다. 부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학대적이고 괴롭히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결혼생활 중 상당기간을 분노중독자로 살았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의 형제 중에서 6남 4녀 중 넷째라고 하셨는데요, 4째 아들인 교수님이 4살 무렵 양자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섭: 심리학자들은 초기기억이 그 사람의 인격

과 운명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돌아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이웃 동네 먼 친척 아저씨가 장날마다 우리 집에 찾아와 “아들 많은 집에 넷째 아들은 있으나마나 하니 저에게 양자로 주세요”라고 흥정을 하던 기억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지만, 부모님은 잘 놀고 있던 저를 불러 아저씨 손을 잡아주면서 “가서 호강하고 잘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호강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순간적으로 “아, 부모님이 나를 버리기로 하셨구나”를 직감하고 엄마 치마를 붙들고 있는 힘을 다해 “나는 엄마하고 살거야. 낯선 아저씨를 내가 왜 따라가?”라고 땅바닥에 나뒹굴면서 저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자사건은 미수로 끝났지만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고 5일장이 설 때마다 우리 집을 찾아와 저를 양자로 데려가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뇌의 상처로 남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까지 정신적 외상(trauma)으로 남아 저의 정신건강과 언행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은 분리불안과 유기공포로 발전하여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을 어렵게 했습니다. 저는 10남매 중 중간 아이로 “조용한 아이”로 자라났으며, 후에 갈등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주도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동일시하는 인물이 안드레인데요, 항상 소개하고 중재하며 화해시키고 통역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좋은 생각을 나누고 싶어 Billy Graham의 〈하나님과과의 평화〉, Paul Tournier의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50여권이 넘는 책을 번역하였으며, 〈부부연합의 축복〉,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 등 지금까지 18권의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집다”는 말을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에 아버지가 노름으로 돈을 날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는 수 없이 면소재지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에 전학을 하게 되면서 저에게 두 번째 외상적 경험이 찾아왔습니다. 한글을 깨우쳤지만, 더듬거리며 책을 읽지 못해 급우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저는 책을 읽어서 따라가야 한다고 판단해 학교만 파하면 집에 와 책을 읽는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동섭 교수의 도서 중 일부를 소개한다

정인숙: 그 일에 대한 충격으로 지적인 성장에 영향을 주어서 학습이 부진했다고 하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신 경험을 알고 싶습니다.

정동섭: 이 정서적 충격은 저의 인지적 성장에 장애로 작용하여, 저는 초등학교 4학년에 되어서야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며, ‘어떤 것이 하늘이고 어떤 것이 구름인지’를 몰라 고뇌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자폐아처럼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고, “사내자식이 숫기가 없다. 입이 무

이웃집 아주머니가 놀러왔을 때, 어머니는 “우리 동생이가 전학을 온 후로 식음을 전폐하고 책만 읽는다.”고 자랑하셨습니다. 이 칭찬(?)이 촉매제가 되어 저는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중독자가 되었고, 5학년 때 꼴찌 하던 학생이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운명론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섭리 중에 저를 책을 가까이 하는 독서중독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지만 책은 상처를 주지 않는다). 세월이 흘러 저는 결국 교육학자, 상담학자가 되었습니다.

정인숙: 대학교 시절에 이단 구원파에 소속해서 다니셨지만 결혼 후에 구원파를 나오시게 되었고 지금까지 구원파와 이단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계시는데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정동섭: 나는 열심히 공부해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제가 1차 서울고 시험에 실패해 시골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제가 흥제동 뒤 안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측량을 하러 온 미군 두 명을 만나 영어로 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나는 서울에 남아 2차 시험에 합격해 미션계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경희대 2학년 때 Korea Herald 주최 전국영어웅변대회에서 1등을 할 정도로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영어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친구의 소개로 '성경을 통달했다'는 구원파 교주 유병언을 만나게 되어 진로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전 12:12)는 말씀으로 공부하는 것도 헛되고, 취직하는 것도,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설득하며 자기를 따르라고 훈계하였습니다.

종교는 궁극적 관심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게 종교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진지하게 찾는 것이 대학시절입니다. 지금도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만희, 정명석, 박옥수와 같은 거짓선지자가 제시하는 그릇된 답에 미혹되어 엉뚱한 이단사설에 헌신하고 따라가는 젊은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분별력이 없이 방황하던 길 잃은 양은 고졸출신 돌팔이 목사의 잘못된 성경해석을 따라

8년간의 소중한 젊은 시절을 구원파라는 유사기독교집단에서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영국대사관 부공보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저는 1달간 영국을 순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런던과 스코틀랜드의 영국교회를 방문하며 (사도신경, 주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를 무시하는 구원파가 역사적 정통기독교에서 벗어난 이단이라는 것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기도와 찬양, 예배의 필요성을 지도층에 제안했던 것 때문에 저는 '사단의 앞잡이'로 몰리게 되었고, 결국 온갖 협박과 언어적 폭력에 시달리다가 1977년 그 집단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물문교, 형제교회, 지방교회 등 이단을 전전하며 삶의 궁극적 질문에 해답을 찾으려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진리는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배웠는데, 어디서나 항상 모든 사람이 믿는 진짜 복음을 만나기까지 10여년의 방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이단 구원파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거짓선지자들의 배후에는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통일교나 천부교, 신천지, 안중회, JMS, 구원파 등 이단에서는 부부간의 사랑과 화목에 대해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단교주들은 한결 같이 불행한 가정 출신이며 따라서 부부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단교주들은 탐심과 호색, 폭력이라는 공통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30을 넘기기 전에 해야 한다고 하여) 28세에 결혼을 했지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불행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은 어떻게 이단에서 돌아와 정통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결혼생활하면서 공부를 시



이영애 사모와 정동섭 교수

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갑자기 상담의 길을 선택하신 계기가 있다면?

정동섭: 제가 미국대사 통역으로 근무하고 있을 때, 미국선교사와 상담을 했는데 내가 사는 곳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나가보라고 조언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나간 것이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출석한 날 옥관흠 목사님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9)고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아내를 괴롭히고 사랑하지 말라. 너는 거꾸로 살고 있지 않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나는 구원파에서 원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가짜)구원을 받았지만, (아담이 아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결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인

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고 저의 아내는 온유하고 겸손해진 남편의 태도에 감동받아 8년 동안 앓던 위장병과 고혈압, 편두통, 우울증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흥해가 갈라진 것이 기적이 아니고 벽창호 같은 정동섭이 변화된 것이 진짜 기적이라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제가 회심한 후 4개월쯤 지나 미국에서 Gary Collins 박사가 한국에 와 목회상담세미나를 인도하였는데, 그 때 치유의 눈물을 흘리며 통역을 하면서 people helper로, 가정사역자와 상담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저는 아내와 함께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늦은 나이에 시카고에 있는 Trinity 복음주의신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아버지 역할에 대해 배우고 싶었습니다.

정인숙: 결혼 후에 미국에 가서서 상담에 관한 공부를 하시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고 유학을 가셨는

데요. 석사는 상담심리를, 박사는 가정사역을 전공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논문을 쓰셨는지 그 사연을 알고 싶습니다.

정동섭: 분노와 열등감(낮은 자존감)은 저와 우리 가족을 괴롭힌 저의 핵심감정(core feelings)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사과정에 '부부사이의 분노'라는 논문을 썼고, 박사과정에는 한국부모들의 자녀양육유형(parenting style)과 자녀들의 자존감에 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처가 분노의 원인임을 진단받으면서 분노증독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부인해야 하나 사랑해야 하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돈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해답을 제시하는 [자존감 세우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부관계에 관한 한 지난 한 세대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일방적 권위가 상호적 권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이던 부부관계가 수평적이고 우애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갑을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권위와 순종의 관계를 고집하는 남편은 황혼이혼을 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피차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부부가 피차 사랑하고 피차 존중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권면대로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벧전 3:7). 서로에 대해 많이 배워서 알수록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대의 결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 있었던 사건

현대의 결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날그날 있었던 사건에 대해
심정대화를 나누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경제적 안정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에 대해 심정대화를 나누는 의사소통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경제적 안정보다 정서적 친밀감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정인숙: 구원과 뿐 아니라 여러 이단에 대처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단 대처하는 일이 지금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정동섭: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종교중독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며 생활한지 10여년이 흘러 대전 침신대 교수로 사역하고 있을 때, 구원과 교주 유병언은 제가 구원파를 비판한 논문과 저의 강연내용을 문제 삼아 저를 명예훼손과 12억원 신용훼손 혐의로 고소해왔습니다. 당시는 5, 6공 시절이어서 민정당 모범당원이던 유병언은 권력을 등에 업고 저를 고소해 저는 출근길에 경찰서에 출두하였다가 구속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991년 저는 15일 만에 구속적부심을 통과해 6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단교주를 비판하는 것은 개인감정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가정과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공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 분명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후에도 유병언은 사망 전까지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며 17차례나 더 저를 고소하고 괴롭혔습니다.

세월이 지나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나자 KBS, MBC를 비롯해 모든 중편 채널에서 저를 초청해 유병언과 구원파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셨지요). 지금은 제가 구원파가 오대양과 세월호의 배후라고 말한 것 때문에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항소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은 문제가 생기면 부

인하고 투사하는 방어기제를 사용하는데, 1심 재판에서 저들의 요구를 기각하였으나 구원파에서 다시 항소해 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박태선의 천부교와 박윤식으로부터도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모든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그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이단과의 싸움을 피하고 싶었지만 저에게 맡겨준 십자가로 알고 사망감을 갖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가정사역자와 이단전문가로 세워주셔서 현재 저는 한국가정사역협회 이사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상임위원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종피맹) 총재로서, TV와 라디오에 출연하여 200여회에 걸쳐 구원파, 천부교, 통일교, JMS, 신천지, 안상홍증인회 등 이단은 (1)하나님 대신 우상(교주)을 숭배하게 하며; (2)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주고; (3)가출, 이혼을 조장해 가정을 무너뜨리며, (4)교회를 분열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전 국민에게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신천지로 인해 가정파괴의 피해를 입은 가정이 20,000가정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집단입니다. 그래서 종피맹에서는 종교적 적폐청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 사기포교로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이단을 규제하기 위해 유사종교규제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도박중독과 본인의 분노중독과 독서중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이 알코올중독과 도박중독, 게임중독 등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역기능가정과 중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숙 박사

정동섭: 전문가들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건강한 순기능가정은 5%밖에 안되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역기능가정 출신의 ‘성인아이’(adult child)입니다. 집안에 중독자가 있으면 그 가정을 역기능가정이라 합니다. 가족 간에 안정된 애착관계가 이뤄지고 있으면 부부간에, 부모자녀 간에 자존감을 높여주는 순기능적 대화가 이뤄집니다. 그러나 관계에 친밀감이 없고 회피적 애착이나 저항형, 혼란형 애착이 이뤄지면, 사람은 물질(알코올, 마약, 음식)이나 종교, 사상, 물건, 일, 게임, 도박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중독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중독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중독문제연구소장 Dale Ryan은 “세상을 볼 때 중독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학대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외상(trauma)으로 고통 하는 사람들, 그리고 10% 내의 건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지구의 중심적인 현실은 중독과 학대와 외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단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이 세 가지이다”고 하였습니다. 중독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심리학자 Gary Collins는 “중독이란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며, 결과에 상관없이 통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다. 중독은 단기적 이득을 가져다주지만, 건강이나 가족관계, 심리적 안녕감, 또는 영성 면에서 장기적으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였습니다.

중독에는 호감중독과 혐오중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알코올, 담배, 게임, 도박 등은 혐오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서, 관계, 김치 중독 등은 긍정중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 소속감과 인정, 공감, 배

“

관계에 친밀감이 없고 회피적 애착이나 저항형, 혼란형 애착이 이뤄지면, 사람은 물질(알코올, 마약, 음식)이나 종교, 사상, 물건, 일, 게임, 도박 등에 집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중독공화국이라 할 정도로 중독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정동섭 교수

우리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부관계를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부부는 인생전체가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려, 웃음을 주고받는 소통이 이뤄진다면 중독은 애착관계로 대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인숙: 교수님의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교수님께 영향을 준 중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섭: 우리의 정체감과 자존감 형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심리학에서 ‘중요한 타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타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저에게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어주셨고 나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분들 중에는 옥한흠, Paul Tournier, Gary Collins, Lloyd-Jones, David Mace 등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나에게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서술적 학문(descriptive science)으로서 인간의 문제를 진단해 주지만,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제

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성경과 신학, 윤리 등 처방적 학문(prescriptive disciplines)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께서 상담학자와 교육학자로서 최근에 [행복의 심리학], [부부연합의 축복], [인성 수업이 답이다] 등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셨는데요, 교수님이 요즈음 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시는 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동섭: 우리나라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것처럼, ‘성취하는 경험’(achieving experience)에서는 타민족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류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관계하고 사랑하며 대화하는 등 ‘연결하는 경험’(connecting experience)에서는 좋지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온통 지식교육에 치우쳐 있고, 예의 범절, 효도, 존중, 배려, 소통, 책임, 정직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공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80%는 EQ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EQ보다 IQ중심교육을 하다 보니 자살율과 범죄율,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밥상머리교육, 대인관계교육, 체육, 음악, 미술을 중시하는 예능교육에 비중을 두어야만 선진국반열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전반적인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자기 만족으로, 성경은 행복을 자족하는 마음상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빌 4:11-12). 21세기 긍정심리학은 우리의 행복이 로또복권이나 금메달과 같은 대

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기쁨을 자주 경험하는데서 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의 심리학은 성취하는 경험보다는 부부, 자녀, 친구 등 가까운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데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between)에 있다고 했습니다. 박세리는 “나는 골프선수로 성공했는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행복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사귀지 못했고 결혼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부관계를 행복하다고 평가하는 부부는 인생전체가 행복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정인숙: 교수님이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동섭: 이 시점에서 저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사람과의 만남과 책과의 만남을 통해 저를 인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는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보다도 가족 문제, 그중에서도 부부문제입니다.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우리나라의 역기능가정을 순기능가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에게 (1)대화

(의사소통)기술; (2)분노관리기술(문제해결기술); (3)재정관리기술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어떤 신비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나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혼율을 낮추는 비결은 행복한 결혼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를 사랑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성폭력, 성희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행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부가 성적 친밀감을 누릴 수 있는지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성은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부부간의 정서적, 성적 친밀감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부부간의 갈등, 부부싸움하는 기술, 분노관리기술을 다루는 책을 쓰고 나아가서 가족 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다루는 책을 쓰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이단교주가 되고 이단에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우리자녀가 이단에 미혹되지 않게 하려면 정통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본을 보여야 하며 성도들의 가정행복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힘이 되는 데까지 강의와 저술을 통해 가정사역과 이단 대처 사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행복도를 높이는데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정인숙: 귀한 시간 소중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이비종교에 대처하는 이단예방사역과 우리나라의 행복도를 높이려는 교수님의 사역에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